

무한경쟁 잠시 떠나 삶을 돌아보는 사람들

슬로 투어 늘고 있다

자연과 함께 느긋하게 살아가는 마을, 속도와 무한경쟁이 벗어난 골짜기에서 벗어나 마음의 여유와 해방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 '슬로시티'(Slow City)가 뜨고 있다.

완도 청산도와 신안 증도, 담양 창평, 장흥 유치 등 전남도 내 4개 슬로시티에서는 옛 음식과 삶의 방식을 고스란히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도시인들의 발걸음이 북적이고 있다.

아시아권에서는 처음 슬로시티로 지정된 창평은 전통 먹거

유치는 이곳의 명물인 표고버섯을 구입하고 장수풍뎅이를 직접 보려는 사람들이 붐비고 있다.

이처럼 새로운 휴식 패턴 확산과 함께 올 들어 전남지역 슬로시티 방문객들도 급증했다. 증도 방문객은 올 들어 3월까지 6만7천546명을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5만4천727명보다 무려 23.4%가 증가했다.

청산도의 경우 지난 1월부터 3월 말까지 4만7천294명이 방문

해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4만4천115명에 비해 7.2%가 늘었다. 창

평과 유치의 경우 내륙이어서 정확한 집계는 나오지 않지만 예년보다 10% 이상 방문객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남도 내 슬로시티의 인기가 급상승하면서 서울과 수도권 지역 여행사들은 슬로시티를 체험할 수 있는 당일 또는 1박2일 상품을 앞다투어 내놓고 있다.

전남도 역시 최근 슬로시티만의 특색있는 정취와 풍경을 내세운 '슬로시티 남도여행 1박 2일' 관광상품을 출시, 수도권 및 국내의 대도시 관광객들을 상대로 모객활동에 들어갔다.

담양 슬로시티 체험상품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 H여행사 관계자는 "요즘 들어 당일치기 상품은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으며, 1박2일 상품도 덩달아 판매가 늘고 있다"며 "꼭 짜인 일상에 지친 도시인들이 자신만의 시간과 휴식을 찾아 남도의 슬로시티를 찾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홍행기자 redplane@

청산도 황톳길 거닐며 증도 낙조 여유 즐기고 창평·유치 옛정취 만끽 슬로시티, 전남 새 명물로

리가 방문객들을 향수 어린 옛날로 안내한다. 죽염을 넣어 만든 된장과 간장, 한과와 쌀엿 등 전통음식 제조공장에 들러 추억을 맛보는 코스는 필수다.

정산도에서 만날 수 있는 전국 유일의 초분(草墳)과 노란 유채꽃으로 물들여진 '서편제' 황톳길은 타임머신이 돼 방문객들의 영혼을 수 백년 전으로 되돌린다. 청산도의 명물에 취하려는 관광객을 실어온 차량들이 새벽부터 완도항에 수백m씩 길게 줄지어 기다리는 장면은 이제 일상적인 풍경이다.

증도에도 염전과 낙조를 둘러보며 혼자만의 휴식을 찾으려는 관광객이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광주의 밤 랜드마크

지난 2004년 등록 문화재로 지정된 조선대 본관 건물에 외벽 조명을 받아 백색 광채를 내뿜고 있다. 조선대는 최근 광주시의 예산 지원과 자체 예산을 투입(5억6천만원)해 본관 건물에 대한 야간경관사업을 완료했다.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권양숙 여사 소환 조사

아들 노건호씨도... 연철호씨는 석방

대검 중수부(이인규 검사장)는 지난 1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참고인 자격으로 부산지검 청사로 불러 조사했다고 12일 밝혔다.

〈관련기사 4면〉 검찰은 또 12일 오전부터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로 노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씨를 역시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권 여사를 11일 오전 10시 30분께 소환해 박연차 대광실업 회장으로부터 2007년 6월 말 100만 달러를 수수했다는 부분과 조카사위 연철호씨가 작년 2월 500만 달러를 송금 받은 부분 등에 대해 조사하고 밤 9시 40분께 귀가 조치했다.

검찰은 권 여사를 대검 청사로 소환하지 않고 중수부 검사 두 명을 부산지검으로 파견했으며 참고인 신분인 점과 전직 영부인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비공개 소환해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권 여사는 검찰 조사에서 노 전 대통령이 사과문을 통해 해명한 대로 본인이 100만 달러와 3억원을 받아 채무변제 등에 사용했다고 진술했으며, 달러로 받은 이유 등에 대해서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12일 오전 9시10분께는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건호씨를 상대로 연씨가 500만 달러를 송금받은 과정에 개입했는지, 그 돈을 공유 또는 사용했는지, 또 노 전 대통령 부부가 박 회장으로부터 받은 100만 달러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받아 썼는지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던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씨는 이날 오전 9시께 석방됐다. 검찰은 건호씨와 연씨 모두 주 초에 받은 부분 등에 대해 조사하고 밤 9시 40분께 귀가 조치했다. /연합수



전남 수돗물 25% 누수 年 216억원 줄줄 샌다

이정현 의원 지적

계속된 가뭄으로 물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전남지역의 수돗물 누수가 전국에서 가장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은 12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 수돗물 사용량 및 누수율, 요금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의 수돗물 누수율은 평균 12.8%였다고 밝혔다.

시도별로는 전남이 25.0%로 가장 높았고, 경북 24.0%, 전북 23.2%, 경북 22.6%, 강원 22.2% 순이었다.

전국 165개 시·군 중에서 경북 의성군이 50%의 누수율을 보여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전남에서는 진도군(48.3%), 고흥군(47.2%), 구례군(44.3%), 해남군(41.8%), 함평군(40.8%)의 누수율이 높았다.

전남지역에서 샌 수돗물을 돈으로 환산할 경우 연간 216억여 원이고 전국적으로는 3천500억 원(5억5천만여원)이나 된다.

반면 서울의 누수율은 6.3%로 가장 낮았고 경기도 8.6%, 광주 9.0%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지난 2월에만 전국 17만명이 제한·운반급수로 생활용수를 공급받았던 것을 고려할 때 상수도 설비교체로 물 낭비를 최소화하는 게 시급하다"며 "상수도 설비교체를 위해서는 현행 상수도 개발 및 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비를 국가에서 보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투자 통한 일자리 창출 광주·전남 기업들 부진

김재균 의원 분석

광주·전남지역 기업들의 신규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 실적이 전국에서 가장 부진한 반면 영남지역에서는 왕성한 신규 투자가 이뤄지면서 일자리 창출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김재균 의원(광주 북)이 12일 공개한 지식경제부의 '지자체별 2008년도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현황'에 따르면 광주지역 기업들이 지난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은 4억7천520만원으로 23개 기업에 99명이 보조금 혜택을 받았다. 이는 전체 보조금 규모의 3.4%로 부산(15.7%), 울산(8.8%), 대전(4.6%), 대구(4.4%) 등 광역시 중 가장 작았다.

특히 전남도의 기업이 지난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은 1천620만원으로 1개 기업에 3명만이 보조금 지원을 받았다. 이는 전체 보조금의 0.1%로 경남(24.2%)과 경북(20.9%)은 물론 강원(2.3%)과 제주(0.6%)보다도 낮아 전국 최하위였다. 영남권 기업이 받은 보조금은 전체의 74.0%나 돼 지역간 편중 현상이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도입된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은 비수도권 기업이 새로 일자리를 만들면 1년 동안 1명당 월 50만원을 지급한다.

분석 결과 광주와 전남지역의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비율이 비수도권 지자체 가운데 턱없이 낮은 데 비해 이명박 정부 들어 영남지역에는 신규 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SDL 인재개발 아카데미 전문서비스 강사모집

5년 경력 인재개발 아카데미는 전문 서비스 강사 강령과정을 통하여 차별화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생들에게 폭넓은 교육활동의 범위를 제공함으로써 교육의 질 향상을 통한 강사로서의 자질 확립과 "미של 1명 1개원 1개팀 100% 책임감"을 통한 100% 커리어/취업/사내강사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전문 서비스 강사"를 위한 기회의 문을 마련함으로써 SDL 인재 개발 아카데미 교육이념을 실천하는 기업입니다.

수강접수에서 취업까지 ONE-STOP!

모집요강

- 1. 모집분야: 전문 서비스 강사 (서비스 강사, 상담 강사, 교육 강사, 마케팅 강사, 영업 강사, 기획 강사, 관리 강사, 기타)
- 2. 모집인원: 10명 (분야별 10명)
- 3. 모집대상: 2009년 4월 13일(월)~4월 30일(목)까지
- 4. 접수방법: 방문접수(광주광역시 북구 각동로 48-15 동명주빌딩 4F)
- 5. 서류전형: 1차 - 서류접수, 2차 - 면접
- 6. 원본증서: 영수증 확인서, 서류 전형후 면접 통과자에 한하여 수강신청 필히
- 7. 전화문의: 062-373-0650, 074-0650 (합수정 062)

한국기술교육원 평생교육센터
부설 에스디엘 인재개발아카데미